

치 사

지난 2011년 1월 우리종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언하고 민족문화 수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과 불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종교로 다시 서는 길을 걷기위해 그동안 대중공사, 야단법석, 1000일 정진 등에 사부대중이 많은 관심으로 참여하며 정진해 왔습니다. 특히, 중앙종무기관과 조계사는 결사추진본부 창립 이전부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108배 정진', 그리고 청계천 광장과 낙동강 낙단보에서 1080배 정진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동안 종도들의 다양한 조언과 격려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가며 묵묵히 정진해 오신 결사추진 본부장 도법스님을 비롯해서 함께 정진해 온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처음 결사를 제안할 당시 형식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일부의 우려와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깊은 관심과 염려 속에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제주도 해군기지 등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나아가 교계 내외의 많은 관심속에 노동위원회를 설립하고 해고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무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종교평화선언을 추진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종단 쇄신위원회는 청규제정과 의식개혁운동을 강조하면서 법계직무제도를 수립하고, 각종 쇄신입법과 4대 분야 10대 과제라는 종단의 쇄신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단없이 추진해 온 쇄신 결사가 이제는 교구와 사찰 그리고 스님과 신도가 함께 주인이 되어 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결사의 내용을 지역과 계층별 특성에 맞게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마련하여 ‘붓다로 살아가자’는 저마다의 발원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승보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1000일 정진도 700여일에 다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1000일 정진 회향을 이루게 됩니다. 마침 사회의 저명한 학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전미개오입니다. ‘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는 마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자성과 쇄신결사에 대한 온갖 우려와 오해, 그리고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2014년 갑오년에 그동안 함께 뿌린 씨앗이 싹트기를 모두 함께 기대합니다.

34대 집행부에서도 결사는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라는 확고한 기조로 실현해 나갈 것이며, ‘붓다로 살자’라는 실천 의지를 통해서 결사추진 본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종무기관과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마다의 정진이 하나의 큰 성취로 모이고, 이러한 공덕이 다시 모든 이웃에게 행복으로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8년 1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